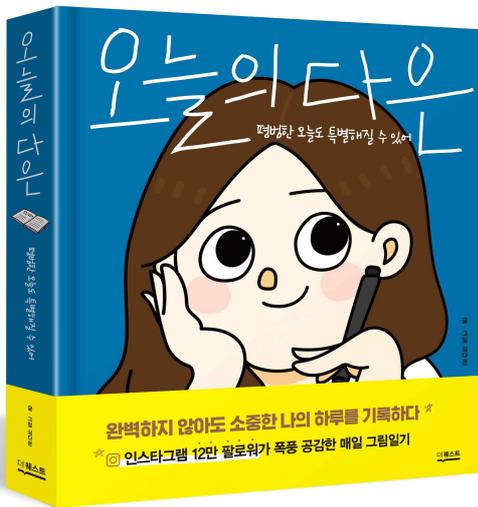


오늘의 다은

평범한 오늘도 특별해질 수 있어



지은이 | 심다은
발행일 | 2018년 12월 3일
분 야 | 그림에세이, 한국에세이
판 형 | 158×178
형 태 | 양장, 224쪽
정 가 | 15,000원
출판사 | 더퀘스트
담당자 | 최지은 대리 02-330-9834
ISBN | 979-11-6050-645-7 02810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한 나의 하루를 기록하다
“오늘, 당신을 행복하게 한 작은 것은 무엇인가요?”

평범한 오늘이 특별해지는 시간!

인스타그램 인기 작가 ‘오늘의 다은’ 매일 그림일기

일 년 중 며칠 안 되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대체로 우리 일상은 ‘집 학교 집 학교’ 또는 ‘집 회사 집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의 반복이다. 돈은 언제 버는지 매일 여행만 가는 것 같은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 가나초콜릿만큼이나 틀 잡힌 내 인생이 더 씁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곰돌이 푸는 일찍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인스타그램 인기 작가 심다은(@todaydaeun)은 일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림일기를 연재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에도 늘 즐거운 일은 있었다. 매일 올린 그림일기에는 그날 무슨 옷을 입었고 누구와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등 소소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다. 노래방에서 추억의 만화 주제를 열창하고, 엽기떡볶이를 매운맛으로 시켰다가 단무지와 쿨피스를 더 많이 먹고, 드라마를 볼 때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빙의라도 된 듯 ‘뭐 하는 거야, 이 답답아’라고 훈수를 놓고, 여행에서 돌아와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오늘의 이야기지만 작가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재미를 찾아가게 된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기억하는 방법
언젠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이야기

작가는 오늘의 특별한 순간을 계속 추억하고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todaydaeun’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매일 일기를 올렸고 어느새 13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다. 일기를 쓰다 보니 단순한 사건의 기록뿐 아니라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어느 연예인의 자살을 보고 ‘괜찮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마음의 휴터는 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이겨냈다는 증표라고 여기고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사소하더라도 행복했던 순간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이어폰을 잃어버렸지만 맛있는 치킨을 먹었지! 하고.

일 년 넘게 쌓인 기록에서 작가는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저 남들을 따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꾸밈없이 기록하게 되자 힘들 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됐다. 작가는 우리가 언젠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일기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길 희망한다.





◆ 차례 ◆

Prologue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은 없어

Part1 여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온 건 아닐까?

Story1 누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Story2 조약돌과 유리조각

Part2 가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

Story3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

Story4 나의 상자

Part3 겨울: 좋아하는 일은 여기저기에 흔적처럼 묻어 있어

Story5 기록에 대하여

Story6 그냥 하는 건데요?

Part4 봄: 나는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다

Story7 '괜찮아'의 의미

Story8 휴터

Epilogue 완벽하지 않은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 책 속에서 ◆

일기를 쓰고 그리는 시간은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남 눈치만 보던 시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의 이야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누가 관심을 갖든 말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늘어놓으면 꼭 한 사람은 들어줍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나게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몰랐던 내 수많은 매력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한때는 한없이 하찮게 느껴지던 내가 점점 소중하고 좋아져갑니다. -에필로그

특별한 날보다는 스치듯 흘러가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조차도 잘 모르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평범한 하루들의 소중함을 알아봐주고, 힘들었던 나를 보듬어주고, 오늘의 기억을 잘 간직해서 추억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다 보면 분명 어제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한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오늘의 일기를 적어보시겠어요? -에필로그

◆ 지은이 소개 ◆

심다운

@todaydaeun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한다. 작지만 하루가 행복해지기에는 넘치도록 충분한 것들을 한 장의 그림일기에 담아 일 년 넘게 연재하고 있다. 나의 하루를 들여다본 것 같은 평범한 날들이 이토록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